한라산 북서·남사면 오름의 경관특징 및 인문자원 고찰

고윤정*, 김대신, 전용문, 고수미[1)], 고정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제주대학교 사학과

서 론

제주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일 뿐 아니라 화산폭발로 형성되어 육지부의 여느 산과는 다른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한라산은 현무암과 조면암이 대칭적으로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순상화산체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한라산의 해발고도 600~1,000m 이상인 산악지대의 대부분이 15° 미만의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 지하의 시추자료에 대한 연구결과 동쪽과 서쪽의 지하에 분포하는 용암의 연령분포와 암석구성이 비대칭적이며, 용암의 하부에 위치한 서귀포층의 분포심도 또한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대칭적인 순상화산으로 형성되었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산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내에는 정상부의 백록담 분화구를 중심으로 장구목과 방애오름,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 등 약 50개의 오름을 비롯한 여러 화산지형들이 분포한다. 한라산에는 주로 조면현무암과 조면암이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도(2000)에 의하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에는 대략 11개의 암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한라산 세계자연유산지구 핵심지역내 오름 중에서도 주로 법정동조면현무암과 조면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한라산 북서사면 및 남사면의 오름 14개를 대상으로 경관특징을 조사하고 인문자원 등을 고찰하였다.

* 교신저자 ; 전화: 064-710-6987, e-mail: kyj5526@korea.kr

조사지역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조사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 북서사면 및 남사면의 오름 14개를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였다(그림 1). 북서사면 오름은 걸시오름과 골머리오름, 냇새오름과 붉은오름을 시작으로 족은드레와 큰드레, 쳇망오름, 사제비동산과 민대가리동산, 장구목까지 이어지며, 남사면 오름은 웃방애와 방애오름, 알방애오름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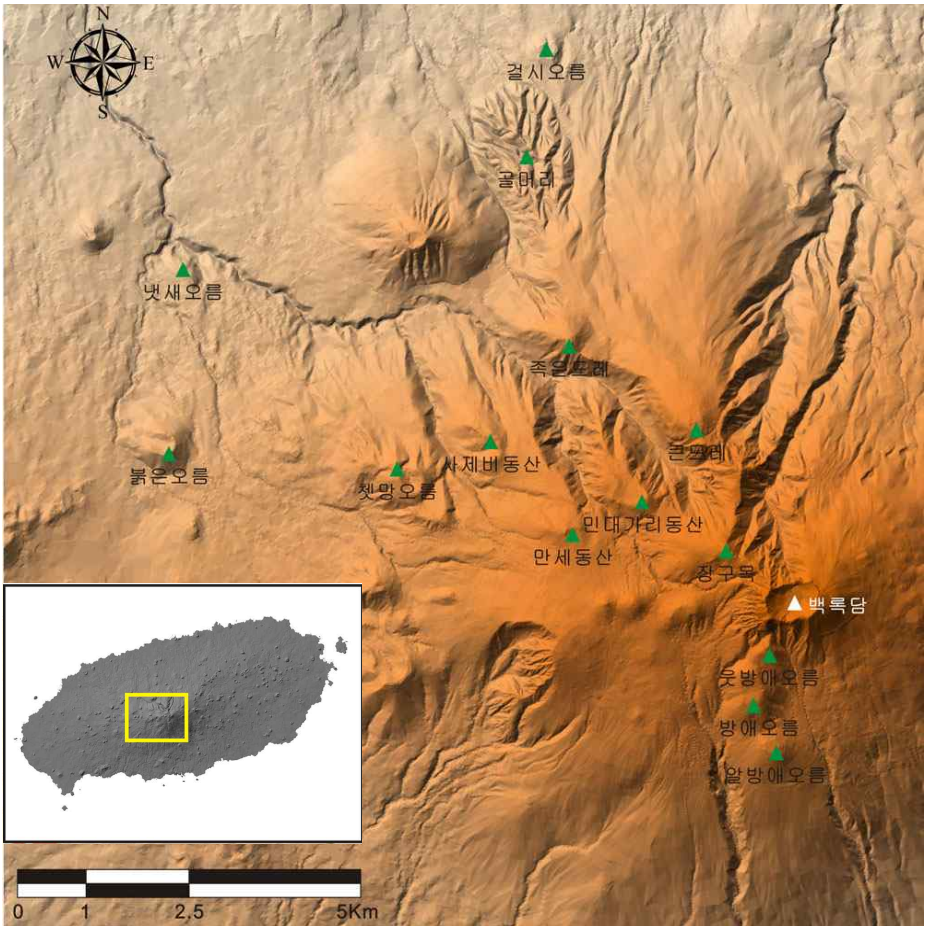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지 개황

2. 조사방법

오름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관 및 지질특성을 조사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오름에 대한 문헌적 고찰로 기존 문헌자료 및 관련서적과 고지도 등을 분석하여 각 오름에 대한 지명유래 및 역사와 민속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오름에 대한 용천수 및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제시하였다. 각 오름의 나열순서는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오름의 명칭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발행 『한라산의 자연자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장구목

1) 경관특징

장구목은 일명 장구목오름으로 불기기도 하며 제주시 오라동 산 107 일대에 위치한 해발 1,813m의 오름이다(그림 2).

장구목 최고점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삼각봉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포함하고 있다. 지형 분석결과 장구목은 완만한 언덕모양으로 솟아있는 형태이며 분화구 지형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2. 장구목

지질학적으로 장구목은 윗세오름조면현무암 분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10m 두께의 용암류가 누적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암류의 단면에서는 불규

칙한 유동구조가 관찰되며 다공질의 용암들이 두껍게 엉겨붙은 외형을 보이고 있으며 곳곳에 스코리아의 파편들도 관찰된다. 이와 같이 스코리아와 다공질의 용암들이 엉겨 붙어 있는 특징은 주로 분화구 내부 또는 외부 사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장구목은 지형적으로 분화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구 내부에서 나타나는 암석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오래전에 분화구가 형성되고 풍화침식을 거치면서 일부 분화구 사면만 언덕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명유래

'장고목' 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타악기인 장구의 목과 같이 잘록한 부분이라는 데서 붙였다 한다. 옛 지도에 보이는 長鼓項(장고항)의 長鼓(장고)는 '장고'의 음독자 표기로 오늘날의 '장구'를 말한다. 項(항)은 '목(項 목 항)'의 훈독자 표기로,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이란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뜻으로 볼 수도 있다.

18세기『탐라지도』(1709)와『제주삼읍도총지도』를 보면 두리여(斗里礇)남서쪽 또는 소두리(小斗里)남서쪽, 大斗里(대두리) 북서쪽 골짜기에 '長鼓項(장고항)'이라고 표기하였다. 19세기 후반「제주삼읍전도」(1872)와「제주지도」(1872)에도 斗里礇(두리여)와 小斗里(소두리) 남서쪽에 '長鼓頂(장고정)'으로 표기하였다. 옛 지도의 내용으로 보아 지금 한라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큰두레왓오름'·'족은두레왓오름'과 '촛대봉(민대가리동산)' 사이 골짜기 일대를 '장고목>장구목'이라 했던 것으로 보인다(오, 2007).

3) 역사와 민속

장구목 오름 정상에서 삼각봉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 선상에 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있고 예전에 우마 방목을 했을 때 남북으로 갈라놓은 돌담이 현재 남아 있다. 그리고 남서사면에는 구상나무가 숲을 이룬 가운데 '웃상궤'라는 바위굴이 있는데 '위쪽 구상나무 숲에 있는 바위굴'이란 뜻으로 예전에 마소를 치는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장구목 능선에는 1977년 9월 한국에베레스트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제주출신 산악인 故 고상돈의 케른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장구목 정상의 바위에는 1983년 제주대 산악부 적설기 훈련 중 사망한 대원의 추모판이 새겨져 있는데, 제주대 산악부에서 추모제를 지내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이 눈과 함께 동반되어 용진각 계곡쪽으로 눈처마가 형성되어 산악 훈련하는 산악인들에게 눈사태 위협을 주는 장소이다.

4) 용천수

장구목물은 동어리목골(Y계곡 우측)이 발원되는 끝부분에 위치한다. 고상돈 케른에서 서쪽으로 작은 골짜기를 따라 계곡을 향해 가다보면 샘이 있는데 하루 용출량은 10톤 정도가 된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대학산악부가 개설한 Y코스 계곡으로 산악훈련과 더불어 Y코스로 등산을 하며 야영을 할 때 식수로 사용했던 용천수이다.

5) 현재 이용 현황

현재는 동어리목골과 서어리목골이 합류되는 지점에 도민의 식수원인 수원지가 생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2. 웃방애오름

1) 경관특징

웃방애오름은 일명 웃방애, 웃방에, 윗방아오름이라고도 하며, 백록담 남벽 밑에 바로 붙어 있는 오름으로써 서귀포시 동홍동 산 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해발 1,747.9m, 비고 73m의 나지막하고 완만한 경사의 오름이다(그림 3).

백록담 남벽이 장대하게 우뚝 솟아 뒤를 받쳐주고 있어 언뜻보면 오름처럼 보이지 않고 작은 둔덕처럼 보이나 막상 오름 정상에 올라가면 남벽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발아래로 방애오름과 왼쪽으로 알방애오름이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다.

그림 3. 웃방애오름

아래로 방애오름과 왼쪽으로 알방애오름이 연결되어 있는데, 방애오름의 위쪽에 있다 하여 웃방애오름이라고 하고 있다.

지형도 상에서 뚜렷하지는 않지만 화산체의 형태가 남아 있으며, 분화구가 없어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다. 지질조사 결과 이 세 오름은 모두 윗세오름조면현무암 분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분화구의 사면은 대부분 적갈색의 스코리아(scoria)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리아는 대부분 서로 눌러 붙어 있는 형태의 용결구조가 잘 나타난다. 따라서 이 세 오름은 전형적인 분석구로 추정되며, 인접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류의 특징이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분석구로 추정된다.

2) 지명유래

세 오름 중 가운데 있는 방애오름의 정상부 모양이 야트막하게 패인 원형으로, 제주어로 '방애[방에]'와 유사하다하여 붙여진 방애오름의 위쪽에 있다하여 웃방애오름으로 불린다. 제주어 '웃'은 '위[上]'를 뜻하는 말로 방애오름을 중심으로 위쪽에 위치하여 '웃방애오름'이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웃방애오름(上碾岳)'으로 표기되어있다.

3) 용천수

웃방애오름 아래쪽 기슭 등산로 주변에 방아오름샘이 있는데 웃방애오름에서 흘러 내려오는 용천수이다. 과거 등반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라산 백록담 남벽 해발 1,700m 일대에 위치한 방아오름샘[방아샘, 방애샘, 방아오름물]은 하루 10톤 정도의 물이 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은 웃방애오름에서 흘러내려오는 용천수인데,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1986년 서북벽등산로가 훼손이 되어 남벽등산로를 개방하게 되면서 등산객에게 알려진 용천수이다.

영실과 어리목등산로, 돈내코등산로를 이용하여 남벽분기점까지 가는 많은 등산객의 식수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지만 가뭄때와 겨울철에는 말라버릴 때가 있다.

3. 방애오름

1) 경관특징

방애오름은 일명 방아오름이라고도 하며 위로는 웃방애오름과 아래로는 알방애오름을 중심으로 백록담 남벽 밑에 연이어 붙어 있는 세 개의 오름 중 가장 가운데에 있는 널따랗게 펼쳐진 오름으로써 서귀포시 동홍동 산 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해발 1,699.3m, 비고 129m의 오름이다(그림 4).

오름의 모양이 연자방아를 이르는 제주어인 '방애[방에]'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써, 백록담에서 방애오름을 바라봤을 때 정상부가 원형 경기장을 연상케 만드는 모습이 영락없이 나무를 다듬어 만든 디딜방아 모양의 제주어로 '남방애'를 연상하게 한다.

그림 4. 방애오름

방애오름을 좌우 경계로 하여 한라산 남쪽의 가장 큰 하천인 효돈천의 상류로부터 '산벌른내'가 형성되어 있다. 오름의 동쪽 하천은 백록담 남벽에서 발원하여 서귀포 미악산[솔오름]으로 향하고, 서쪽 하천은 백록담 서북벽에서부터 흘러 방애오름 주변에서 합쳐진 후 산벌른내로 흐르며, 돈내코 상류와 영천악 부근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2) 지명유래

제주어로 '방애'는 절구와 연자방아를 통틀어 일컫는 도정기구인 '방아'를 뜻한다. 한자로 침악(砧岳)으로 표기하였다. '砧岳(침악)'의 砧(침)은 '방하(砧 방하돌 침, 방핫돌 침)'의 제주어 '방애(방에)'의 훈독자 표기이고, 岳(악)은 '오롬'의 훈독자 표기이다. 곧 砧岳(침악)은 '방애오롬'의 차자표기이다.

「탐라지도」(1709),「제주삼읍전도」(1872),「대정군지도」등에 '砧岳(침악)', 우낙기 『제주도』에는 '방애오름, 石釜岳(석부악)'으로 표기되어 있다(오, 2007). '砧岳(침악)'의 砧(침)은 '방하(砧, 방하돌)'의 제주어 '방애(방에)'의 훈독자 표기이고, 岳(악)은 '오롬'의 훈독자 표기이다. 곧 砧岳(침악)은 '방애오롬'의 차자표기이다. 우낙기『제주도』에 보이는 石釜岳(석부악)은 '돌방아'의 제주어 '돌방에'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현재 이용 현황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돈내코등산로로 연결되는 남벽분기점까지는 방애오름과 웃방애오름 사이에 가로질러 있어 영실등산로와 돈내코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이면 누구나 방애오름 옆을 거치게 된다. 방애오름 정상에는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4. 알방애오름

1) 경관특징

알방애오름은 일명 알방아, 알방에오름 등으로 불리는데, 위로부터 웃방애오름과 방애오름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오름으로써 서귀포시 동홍동 산 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해발 1,584.8m, 비고 85m의 오름이다(그림 5).

웃방애오름과 방애오름, 알방애오름은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분포하고 있는 오름들이다. 알방애오름은 방애오름 남사면에 가파르게 비탈져서 뻗어 있으며, 둥그스름하며 비교적 완만한 사면을 가졌으며 위가 평퍼짐한 모양을 하고 있다.

방애오름과 알방애오름 옆으로는 남벽을 발원으로 하는 하천을 끼고 돈내

코등산로가 지나가게 되며, 돈내코등산로의 최고점인 남벽분기점에서 알방애오름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천연의 자연동굴(궤)를 이용하여 대피소로 만든 평궤대피소가 있다.

그림 5. 알방애오름

2) 지명유래

제주어 '알'은 '아래[下)]'를 뜻하는 말로 방애오름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위치하여 '알방애오름'이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지도에는 '알방애오름[下碾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5. 큰드레

1) 경관특징

큰드레는 일명 큰두레왓, 큰드레왓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오라동 산 107번지 일대에 위치한 오름으로써 해발 1,628.4m의 화구 없는 원추형 오름이다(그림 6).

항공사진과 지형도 상에서는 화산체의 지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완만한 언덕위에 넓은 평지가 드러난 지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상부 평지에는 커다란 암괴들이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큰드레의 암석은 기존 지질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라산 최정상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라산조면암 분포지역에 해당된다. 이 암석은 한라산 정상에서 북서쪽으로는 큰드레를 거쳐 족은드레 하부에 이르며 두께는 50여m로 북서쪽으로 가면서 두께는 얇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드레 지역은 스코리아가 나타나지 않고 전형적인 한라산조면암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백록담 남벽과 동일하게 돔 형태를 이루던 한라산조면암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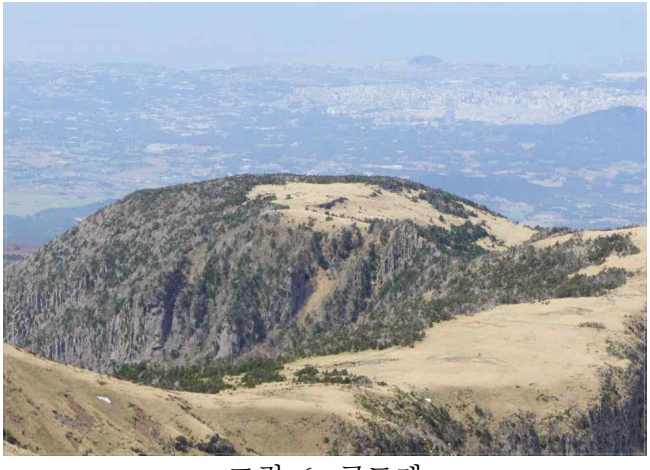
그림 6. 큰드레

장구목과 삼각봉 중간지점에서 어승생악 방향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위치하며, 큰드레 정상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평지가운데에 위치한 암괴가 정상임을 알려준다. 동쪽으로는 탐라계곡[서탐라골], 서쪽으로는 어리목광장, 남쪽으로는 어리목계곡에 걸쳐져 있다. 동어리목계곡 급사면에는 '병풍바위' 또는 '선녀바위(또는 선의바위)'라는 암벽이 깎아지르며 펼쳐져 있어 장관을 이룬다.

2) 지명유래

'큰드레왓', '큰두레밭', '두리오름', '두리봉', '큰두리오롬', '큰두레왓오롬' 이라고도 불린다. 이형상의『탐라순력도』「한라장촉」(1702),「탐라지도」(1709), 18세기『해동지도』「제주삼현도」등에서 '斗里磎(두리여)', 18세기 중반「제주삼읍도총지도」에 '大斗里(대두리)', 19세기「제주삼읍전도」,「제주군지도」에는 '斗里嶼(두리서)',『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는 '斗里峯(두리봉)' 으로 표기되어 있다. 1:5,000 지형도에는 '큰두레왓'으로 표기하였다.

이 오름을 '두리여' 또는 '두리오름'으로 부르고 한자로 斗里磎(두리여) 또는 斗里嶼(두리서), 斗里峯(두리봉) 등으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오름이 있는데, 이들을 구분해서 부를 때는 '큰두리여'와 '족은두리여'로 부르고, 한자로 大斗里(대두리)와 小斗里(소두리)로 표기하였다.

斗里磎(두리여)와 斗里嶼(두리서)는 '두리여' 또는 '두리오롬'의 한자차용표기이고, 斗里峯(두리봉)은 '두리오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大斗里(대두리)는 '큰두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斗里(두리)는 '두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둥글다'의 뜻인 '두리'(圓 두리 원)의 표기로 보인다. 大(대)는 '큰'의 훈독자 표기,

礇(여)와 嶼(서)는 ‘바위’ 또는 평지에 있는 산을 뜻하는 것으로 ‘오롬’의 훈독자 표기이고, 峯(봉)도 ‘오롬’의 훈독자 표기이다.

이 오름의 형태가 둥그스름한 오름이라는 뜻에서 ‘두리여’, ‘두리오름’이라 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어 부른 것으로 보인다. ‘큰드레왓’ 또는 ‘큰두레왓’의 ‘드레’ 또는 ‘두레’는 ‘두리’의 변음으로 보이며 ‘왓’은 ‘밭(田)’의 제주어로, 넓은 밭과 같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또한 드레[왓]는 ‘들판’과 ‘에’(처소격 조사)와 ‘왓[밭]’이 합쳐진 것으로 편평한 방목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탐라순력도』(1702)에는 큰드레가 빨간색으로 방목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목장지대였음 알 수 있다(오, 2007).

3) 역사와 민속

『탐라순력도』(1702)에 큰드레와 족은드레가 빨간색으로 방목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큰드레 동쪽에는 탐라계곡 상류, 서쪽에는 Y계곡, 북쪽에는 아흔아홉골이 걸쳐 있는 고원지대로 들판처럼 평평하여 방목에 적합한 곳이었다. 실제 큰드레에는 예전에 제주사람들이 방목을 했던 돌담표시가 남아 있으며, 목자(牧者)들의 길표시용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가 군데군데 남아있다.

또한 지금은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주시에서 큰두레왓 동쪽 서탐라골 능선을 따라 올라서 장구목을 거쳐 서귀포로 넘어가는 한라산 횡단도로가 통해 있었다고 한다.

6. 만세동산

1) 경관특징

만세동산은 일명 만수동산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광령리 산 138-1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1,606.2m의 원추형 오름이다(그림 7).

만세동산은 완만한 언덕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는 곳으로 한라산조면암의 파편들이 넓게 분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세동산역암이라고도 부른다. 만세동산역암은 장구목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웃방애오름과 윗세오름대피소의 북측 능선과 하천에 따라 1km의 연장을 갖고 분포하고 있

그림 7. 만세동산

고, 북쪽으로는 한라산 정상부와 삼각봉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협곡에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역암의 대부분은 한라산조면암으로 구성되며, 일부 조면현무암 및 분석(噴石)을 포함하고 있다. 한라산조면암체에 가까운 곳(예를 들면 백록담 서측 절벽아래, 장구목 능선, 웃방애오름 능선 일대 등)에는 백록담 정상부에서 떨어져 나온 애추성 역암으로 나타난다. 이 역암은 최후기의 암석으로 한라산 주변에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전에 분출한 모든 암석을 피복한다.

2) 지명유래

일찍이 이 오름은 '만수동산'이라 부르고 '晩水同山(만수동산)', '萬水同山(만수동산)' 등으로 표기하였다.「탐라지도」(1709)와「제주삼읍전도」(1872),『제주군읍지』「제주지도」(1899)등에 '晩水同山(만수동산)'으로, 18세기 중반「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萬水同山(만수동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만세동산'이라고 하는 '만세'는 '만수'의 잘못으로 보인다. 晩水(만수)와 萬水(만수)는 '만수'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同山(동산)은 '동산'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나지막한 언덕을 뜻하는 말이다.

한편 '망동산'이라고도 부르는데, 말과 소를 모는 목동들이 이 오름에 올라 망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오, 2007).

3) 용천수

만세동산의 서쪽방면으로 다소 급경사를 이뤄 경사진 부분에 빗물이 모여 사제비동산과 쳇망오름의 물을 끌어 모은 후 한라계곡으로 흘러드는데, 어리

목의 한밝교 건너편 다리인 한라교로 이어지며 하류로 50m 가량 내려가면 어리목골의 물과 합쳐진다. 무수천을 걸쳐 월대로 이어지는 이 외도천 골짜기의 물들이 제주도민의 식수원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만세동산 앞에는 오름약수라는 용천수가 샘솟고 있으며, 어리목 등산로를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의 중요한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4) 역사와 민속

한라산 어리목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사제비동산을 지나면 오른편에 만세동산이 위치하는데, '만수(萬水)' 또는 '만수(万水)'라 하여 '물 수(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만세동산 동쪽에 있는 넓은 산지형 습지 때문에 불리던 이름으로 여겨진다. 또한 '망동산'은 주위 경관이 한 눈에 들어와 '말과 소를 치는 테우리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방목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만세동산 남측과 윗세오름 중봉 사이에는 방목지의 경계표시인 돌담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들이 흩어져 나뒹굴고 있다.

7. 민대가리동산

1) 경관특징

민대가리동산은 일명 민오름이나 촛대봉으로 불리는 오름으로써,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38-1에 위치한 원추형 오름으로 해발 1,600.5m의 오름이다(그림 8).

민대가리동산은 완만하게 솟아있는 형태의 화산체이며, 정상부가 편평한 언덕형태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지형적으로 분화구는 서쪽으로 경사진 지형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초기 분화구가 서쪽으로 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대가리동산을 구성하는 용암류는 법정동조면현무암 분포지역에 해당되며, 주변에 스코리아와 화산탄들이 분포하고 있어 분석구(噴石口)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대가리동산은 한라산에서 높은 부분에 위치한 오름 중 하나로 한라산의 숨어있는 다양한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남서쪽으로는 만세동

그림 8. 민대가리동산

산이, 서북쪽으로는 사제비동산이 펼쳐져 있다. 어리목계곡방향으로 솟아있는 정상부에 올라가면 오른쪽으로는 장구목과 삼각봉, 큰드레, 족은드레가 발아래 놓여 있으며 이들 오름은 하나의 산맥처럼 보인다. 특히 선녀바위의 숨은 비경도 볼 수 있어 한라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름 전망대라고 할 수 있다. 오름의 정상부는 초원으로 나무나 바위가 없고 경사도 평탄하여 '민오름'이라 불렀던 것으로 추측된다.

2) 지명유래

민대가리동산의 '민'은 나무가 없이 풀밭으로 덮인 민둥산이라는 데서 붙여졌고, '대가리'는 '머리'의 속어이다. '촛대봉' 또는 '민오름'으로도 불린다.

3) 현재 이용 현황

2003년 민대가리 동산의 일부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훼손지역에 녹화마대를 이용하여 복구하였다. 이 지역은 등산로와 널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훼손원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복구공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뤄졌던 곳이다. 지금은 대규모 복구공사로 인해 붉은색을 띠는 스코리아(scoria)가 노출되었던 지역에 부분적으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8. 사제비동산

1) 경관특징

사제비동산은 일명 사제비오름, 사재비오름 등으로 불리는 오름으로써 제

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38-1에 위치하며 해발 1,423.8m의 오름이다(그림 9).

그림 9. 사제비동산

사제비동산은 서쪽으로 오목하게 경사진 지형을 보이는데, 이 지형은 화산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쪽으로 분화구가 터져나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제비 동산은 외형상 전형적인 화산체와는 달리 지형 기복이 낮아 분화구처럼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정상부를 구성하는 암석이 대부분 적갈색의 스코리아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구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와 애월읍의 경계인 어리목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어승생악과 남북으로 마주보고 서 있는 오름이다. 어리목으로 한라산을 오르다 보면 오른쪽으로 처음 거쳐 가는 오름으로 사방이 넓게 트인 편평한 초원지대이다. 그리고 오름의 정상부에 다다를 쯤 동쪽 등산로변에 사제비약수가 있다.

2) 지명유래

사제비동산의 어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흔히 제비가 죽어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기는 하나 이와 달리 과거 테우리들은 '사제비'가 아니라 '새재비오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는 오름 주변의 비문에 표기된 '鳥接'(조접)이라는 용어에서 연유를 찾는 데 '조접'은 '새접' 또는 '새접이'의 표기로 볼 수 있으며, '새접이'에서 '새저비, 새재비, 세재비'의 음성형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제주어 '새잽이'는 새매를 일컫는데, 새매를 닮은 형상인데서 혹은 숲에 새잽이가 서식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3) 용천수

사제비오름은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는데, 동쪽은 약수터 계곡에서 발원하여 어리목계곡으로 흘러가고 서쪽은 남쪽에서 발원하여 쳇망오름 사이를 흘러 어리목계곡과 합류하여 외도천으로 흘러간다.

오름 정상부에 다다를 쯤 동쪽 등산로 변에 사제비약수가 있다. '사제비물(사제비약수)'은 어리목등산로를 따라 사제비동산 정상 부근인 해발 1,400m 부근에서 하루 500톤 정도 용출되고 있어 등산객들이 편하게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 때와 겨울철에는 물이 마르기도 한다.

4) 현재 이용 현황

만세동산과 함께 어리목등산로 이용되고 있으며,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가는 동안 한라산 서쪽의 오름군락을 시원스레 관망할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사제비동산을 지나 만세동산 가까이에 한라산 오름 관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등산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9. 쳇망오름

1) 경관특징

쳇망오름은 일명 망체악이라고도 불리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38-1에 위치한 해발 1,354.9m의 오름으로 북서쪽으로 입구가 벌어진 말굽형 오름이다(그림 10).

쳇망오름은 법정동조면현무암 분포지역에 위치한 분석구로 알려져 있는데, 북쪽으로 터진 외형을 보인다. 분석구의 외형이 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스코리아로 구성되어 있어 말굽형 분석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00도로 탐라각휴게소에서 한라산 쪽을 바라볼 때 보이는 3개의 오름 중 가장 왼쪽에 있으며, 사제비동산 옆에 둥그스름하게 누워 있는 오름으로 어리목계곡을 사이에 두고 어승생악과 마주보고 있다. 어리목 등산로를 따라 사제비 동산에 오르면 쳇망오름의 분화구가 원형 경기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2) 지명유래

그림 10. 쳇망오름

'망체오름', '망체악', '천망악(川望岳)' 등으로 불린다. 쳇망[쳇바퀴]과 생김새가 비슷하다하여 '쳇망오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북서쪽으로 터진 말굽형 화구이다.

민간에서는 '쳇망오름' 또는 '망체오름'이라고도 한다. '쳇망'과 '망체'는 소리를 앞뒤로 바꾼 것으로,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하는 도구인 '체의 테두리'라는 뜻이다. 오름의 모양이 '체'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망체오름' 또는 '쳇망오름'이라 하였다고 한다.

「탐라지도」(1709)에 盖山岳(개산악), 18세기 중반의「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乾松岳(건송악)으로 표기되어있다. 현재 1:5,000 지형도에는 '망체오름'으로 표기하고,「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는 '망체오름, 쳇망오름, 川望岳(천망악)' 등으로 표기하였다(오, 2007).

3) 역사와 민속

오름 서쪽 기슭 해발 1,000m 표지석이 있는 도로변에는 수령 100년이 넘은 '영송(靈松)'이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키가 1m, 둘레가 20m로 7개의 굵은 가지가 제주섬 모양을 하고 받치고 있었다. 옛날 한라산신이 타고 다니던 사슴이 이 자리에서 죽은 뒤 이 소나무가 자랐다는 전설이 있으며, 죽은 사슴을 쓰다듬듯 산신령의 손길 때문에 키가 크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십 여 년 전부터 많은 관광객의 발길에 가지가 하나씩 말라죽기 시작하고 주변에 심어놓은 소나무의 치수가 자라나 무성하게 덮어버려서, 지금은 가지 하나만 겨우 붙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4) 용천수

쳇망오름 남동쪽과 동쪽에서 각각 작은 골짜기로 발원하는 계곡은 사제비오름 사이에서 합류, 1100도로의 한라교를 지나 외도천 주류인 어리목계곡으로 들어간다. 남서쪽에도 어슬렁오름과의 사이에 외도천 상류 지부의 계곡을 끼고 있다.

10. 족은드레

1) 경관특징

족은드레는 일명 족은두레왓, 작은두레왓이라고도 불리며, 제주시 해안동 산 220-1일대에 있는 해발 1,339.2m의 원추형 오름이다(그림 11).

그림 11. 족은드레

족은드레는 지형도상에 화산체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고 다량의 스코리아가 분포하며 암석의 종류도 큰드레와 달리 윗세오름조면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족은드레는 한라산조면암이 용암돔 형태로 지형을 이루고 난 이후 소규모로 스코리아들이 분출하며 만든 분석구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암석의 물리적 특성차이로 인해 큰드레와 족은드레의 식생분포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족은드레(왓)는 한라산 어리목 광장을 사이에 두고 어승생악과 마주 보고 있으며 화구가 없는 원정구(圓頂丘)로 오름의 서쪽 사면은 어리목 광장에 면해 있고, 남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동어리목계곡으로 내지른다. 북쪽으로 뻗친 등성이는 아흔아홉골을 형성한다.

큰드레보다는 오름이 작아 족은드레라고 불리지만 어리목광장에서 백록담

방향으로 보면 높은 비고와 경사로 이루어져있고 분화구 능선이 동북쪽으로 길게 뻗어있어 비교적 큰 오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풍수적으로는 금(金)형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금봉(金峰)이라고도 한다.

2) 지명유래

'작은두레왓', '족은두레왓', '족은두리오름'이라고도 불린다.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와「제주지도」(1709)등에 '斗里�globe(두리여), 18세기 중반의「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와「제주삼읍전도」(1872)등에 '小斗里(소두리),「제주군지도」(1872)에 '斗里嶼(두리서), 小斗里(소두리)',『제주군읍지』「제주지도」(1899)에 '小斗里峯(소두리봉)'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우낙기『제주도』(1965)에는 '대왕오름, 大王岳(대왕악)'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1:5,000 지형도에는 '작은두레왓'으로 표기하였다.

이 오름은 일찍부터 '두리여' 또는 '두리오름'으로 부르고 한자로 斗里�globe(두리여) 또는 斗里嶼(두리서)로 표기하였다. 큰 오름과 작은 오름을 구분지어 '족은두리오름'이라 하여 한자로 小斗里(소두리) 또는 小斗里峯(소두리봉)으로 표기하였다. 斗里嶼(두리서)와 斗里�globe(두리여)는 '두리여' 또는 '두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고, 小斗里(소두리)는 '족은두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小斗里峯(소두리봉)은 '족은두리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斗里(두리)는 '두리'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둥글다'의 뜻인 '두리'(圓 두리 원)의 표기로 보인다. 小(소)는 '작은'의 제주어 '족은'의 훈독자 표기, 峯(봉)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오늘날의 '족은드레'의 '드레' 또는 '두레'는 '두리'의 변음으로 보인다(오, 2007).

한편『탐라순력도』(1702)에는 족은드레가 큰드레와 같이 빨간색으로 방목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목장지대였음 알 수 있다.

3) 용천수

오름 정상에서 장구목과 민대가리 동산을 각각 사이에 두고 발원하는 어리목계곡의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다.

11. 붉은오름

1) 경관특징

붉은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8-2 일대에 위치한 해발 1,050m, 표고는 약 150m의 비교적 높이가 낮은 오름이다(그림 12).

그림 12. 붉은오름(촬영 신용만)

오름의 형태는 지표에서 우뚝 솟은 삼각형을 띠고 있으며, 주변이 완만한 용암대지임을 볼 때 주변과 지형기복의 차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분화구는 북서쪽으로 크게 터진 말발굽형의 외형을 보인다.

붉은오름은 사면에 화산탄을 비롯한 분석들이 관찰되며, 수직의 노출된 단면이 볼 수 없다. 일부 1m 크기의 화산탄도 나타나기도 한다. 정상부에는 분석들이 엉겨붙은 분석층이 수십 cm 두께로 나타난다. 이 분석층은 액체상태의 분석들이 뜨거운 상태로 달라붙어 굳어진 외형을 보여준다. 따라서 붉은오름의 분화구 형태와 구성물질로 미루어 전형적인 스트롬볼리안 분출에 의해 형성된 화산체로 추정된다. 분석구는 형성이후 용암분출에 의해 북서쪽 분화구가 붕괴되면서 남겨지고 분출된 소규모 용암의 일부 분화구 주면에만 얇게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오름 남쪽에는 삼형제오름이라는 세 개의 오름이 있고, 서남쪽으로는 노로오름이 위치하고 있다.

2) 지명유래

붉은오름은 오름을 덮고 있는 송이로 인해 붉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한자를 차용하여 赤岳(적악)이라고도 불린다. 赤(적)은 '붉은'의 훈독자표기, 岳(악)

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

3) 역사와 민속

붉은오름은 제주에 들어 온 삼별초를 이끌었던 김통정 장군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다. 1273년 여·몽연합군과의 격전에서 항파두리성이 함락되자 김통정 장군은 붉은오름에서 최후의 격전을 치른 후 자결했으며 당시 군사들이 흘린 피로 흙이 붉게 물들었다고 하여 붉은오름이라고 불리어졌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4) 용천수

동·서로 크고 깊은 계곡이 흐르며 북으로 흘러 천아오름 부근에서 외도천으로 합류한다.

5) 현재 이용 현황

붉은오름은 천백도로변의 삼형제오름 북쪽 2km 가량의 거리에 있는데, 진입은 고상돈 기념비 북쪽에서 표고밭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는 길을 주로 이용한다. 오름의 서남쪽에는 표고버섯재배지가 조성되어 있다.

2015년 3월에는 냇새오름과 천아오름을 연결하는 한라산둘레길인 천아숲길이 개통되어 트레킹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12. 골머리

1) 경관특징

골머리는 일명 골머리오름, 아흔아홉골로 불리는 오름으로써 제주시 1100로 노형동 산 20 일대에 위치한 해발 848.4m의 오름이다(그림 13).

항공사진 분석결과 분화구가 없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외형을 보이며 곳곳에 깊은 계곡이 발달한 지형을 보인다. 특히 계곡은 주로 북서쪽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깊이가 수십미터에 이르는 절벽이 계곡의 양쪽 사면에 발달하고 있다. 골머리와 어승생악은 서로 맞닿아 있으며 두 지형사이를 따라 깊은 계

그림 13. 골머리

곡이 발달하고 있다.

음영기복도상에서 골머리(오름)은 북쪽방향으로 뻗어 있는 로브(lobe) 모양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계곡은 하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깊이가 얕아지고 규모도 적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골머리오름의 계곡이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지속적인 침식작용에 의해 점차 깊은 계곡을 형성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하천의 분포양상이 나무가지처럼 분기된 양상은 침식에 의해 하천이 발달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골머리는 '아흔아홉골'이라 불리는 골짜기의 가장 첫머리에 해당하는 서쪽 머리 부분의 제 1봉으로 천왕사 일대를 이르고 있는데, 위쪽의 석굴암(石窟庵)이 위치해 있는 금봉곡(金峰谷) 동쪽 능선 상에 있는 오름으로 아흔아홉골의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이다.

오름 자체가 자연림에 덮인 채 뚜렷한 산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북사면은 급경사로 벼랑이 져서 북쪽의 노로손이오름 정상에서 바라보면 오름의 형태를 뚜렷하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골머리오름의 해발고도는 848.4m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형도 분석상 가장 높은 곳의 해발고도는 1,004m로 나타나 일반적인 골머리오름의 높이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골머리오름의 최고높이를 실제 가장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아흔아홉골 중 가장 깊은 골짜기의 높은 지점을 해발고도의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골머리오름의 정확한 해발고도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질조사결과 골머리오름은 제주도의 일반적인 오름을 구성하는 스코리아가 나타나고 단일한 용암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골머리오름

이 스트롬볼리안분출에 의해 형성된 분석구가 아니라 용암돔 또는 언덕지형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인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명유래

골머리는 일찍부터 '아흔아홉골' 또는 '골머리오름'이라 부르고 洞山(동산), 谷頭(곡두), 骨頭(골두) 등으로 표기했다. 이원진의『탐라지』(1653)와 김정호의『대동지지』(1864년경),『증보탐라지』(1954)등에 '洞山(동산)', 「탐라지도」(1709)에는 '谷頭(곡두)',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骨頭(골두)'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洞山(동산)과 谷頭(곡두), 骨頭(골두) 등은 모두 '골머리'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洞(동)은 '골'(洞 골 동, 峒 묏골 동)의 훈독자 표기로, '九十九洞(아흔아홉골)'을 이른다. 山(산)은 '뫼'의 제주어 '미' 또는 '메'의 훈독자 표기이다. 谷(곡)은 '골(谷 골 곡)'의 훈독자 표기, 骨(골)은 '골'의 음가자 표기, 頭(두)는 '머리(頭 머리 두)'의 훈독자 표기이다. '골머리'는 '골(谷)의 머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낙기의 『제주도』에는 '골머리오름', 한자어로는 笏頭岳(홀두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아흔아홉골'은 이익태의 『지영록』(1696)에서 '御乘生後洞(어승생후동: 어승생 뒷골)'으로 표기되어져 있다(오, 2007).

3) 역사와 민속

뛰어난 경승을 자랑하는 아흔아홉골의 오름과 계곡들은 예부터 산승들이 수행하던 이름 있는 도량이기도 하다. 금봉곡의 상류에 있는 암자인 '석굴암(石窟庵)'은 골머리오름 서쪽 협곡 아래 호젓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상류로 올라가면 깎아지른 바위의 아래에 궤(암굴)가 있고, '안경샘'이라는 약수가 흘러나온다. 주변에는 '산신바위', '칠성바위', '삼장동(三藏洞)', '세존동(世尊洞)' 등 불교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바위와 골짜기가 있어 서쪽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천왕사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를 '나한도량'이라 부르기도 한다.

아흔아홉골에 깃든 설화는 제주에 맹수가 없는 이유를 들려주고 있다. 옛날 한라산에 100개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뛰놀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어느 날 중국에서 한 스님이 찾아와 맹수들을 한 골짜기에 몰아넣고 그 골짜기를 없애버렸다. 그 뒤부터 제주에 맹수가 없어지고 큰 인물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4) 용천수

'금봉곡(金峰谷)'이라 불리는 골머리계곡 서쪽 자락에는 '선녀폭포[천녀폭포]'가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 일 년 내내 사시사철 폭포수를 이루는 곳이다. 이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어승생 수원지로 합류 되어 식수원으로 이용된다. 어승생 주변에는 깊은 계곡이 발달했는데 동쪽으로 일명 골머리계곡이 있다. 골머리계곡은 도근천의 상류로 어승생 자락인 어리목 광장 습지에서 발원해 선녀폭포를 거쳐 제주시 이호동의 월대(월대) 동쪽에서 외도천과 만난다. 제주시 충혼묘지가 접해있는 상류로 제주시 상수도보호지구로 보호되고 있다.

13. 냇새오름

1) 경관특징

냇새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2에 위치한 원추형 오름으로 해발 807m의 오름으로 천아오름 동남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오름이다(그림 14).

냇새오름은 한라산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령천의 두 줄기 중간에 위치하여 내와 내 사이 중간에 놓여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름이다.

그림 14. 냇새오름

비고는 100m 내외에 불과하여 비교적 낮은 형태의 오름이다. 그러나 냇새오름의 동쪽 광령천과 인접한 부분에 50-70도의 급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어 오름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 항

공사진이나 음영기복도상에서 냇새오름은 전형적인 분화구의 외형을 보이지 않고 불규칙한 언덕형태의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

냇새오름은 전형적으로 분화구를 가진 분석구와 달리 외관상 낮은 언덕지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성물질이 대부분 분석과 소규모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분석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산체의 하부에 다량의 분석들이 누적되어 있고, 일차적인 화산분출에 의해 쌓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스트롬볼리안 분출에 의해 형성된 분화구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분화구가 뚜렷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체로 북서쪽으로 터진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북서쪽으로 터진 말발굽형 분화구로 형성되었으며, 오랜 기간 풍화침식에 의해 지형이 풍화 침식작용을 거치면서 현재 일부만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지명유래

‘냇새오름’, ‘냇세오름’, ‘냇서오름’ 이라고도 한다. 내(川)와 내 사이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냇새오름’이라 한 것이다. 1:5,000 지도에 ‘냇새오름’으로 표기하고, 「한라산국립공원」지도에 ‘냇새오름, 納賽岳(납새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3) 현재 이용 현황

제주시 천아수원지가 접해 있으며, ‘천아숲길’이라는 한라산둘레길이 2015년 3월에 개통되어 트레킹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14. 걸시오름

1) 경관특징

걸시오름은 일명 걸시악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연동 2448-281일대에 위치한 해발 732.4m의 야트막한 말굽형 오름이다(그림 15).

골머리오름인 아흔아홉골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름으로 산록북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있는 노리손이오름과 남쪽으로 마주해 있다. 오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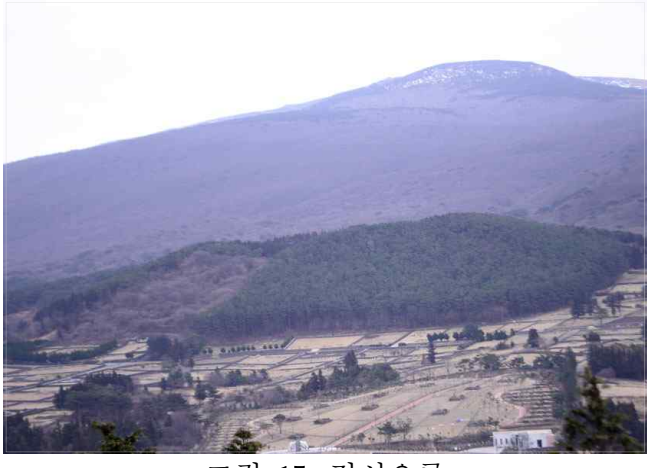

그림 15. 걸시오름

형태는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끼고 양쪽 등성이가 길쭉하게 뻗어 내려 북쪽방향으로 벌어진 말굽형 오름이다. U자에 가까운 형태로 침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며, 한라산 쪽은 새로운 용암에 의해 덮여있어 상대적인 비고를 파악하기 어렵다. 대부분 스코리아로 이루어져있다.

2) 지명유래

'걸쉐오름', '걸세오름', '걸시악', '걸씨악' 이라고도 불리는데, '걸시'는 '걸쇠'[문을 걸어 잠그는 쇠]의 옛말 '걸솨>걸쇄>걸새'의 제주어이다. 오름의 형태가 '걸쇠'와 같다는 데서 붙여졌다. '걸쉐'도 '걸쇠'의 제주어이다.

「제주삼읍전도」(1872)와 「제주군지도」(1872)에 '傑始岳(걸시악)', 『제주군읍지』「제주지도」(1899)에 '傑時岳(걸시악)', 「제주지도」(1899)에 '濕始岳(걸시악)', 1910년경 『조선지지자료』에 '傑氏岳(걸씨악)', 주변의 비문에는 '傑豺岳(걸시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傑始岳(걸시악), 傑時岳(걸시악), 濕始岳(걸시악), 傑豺岳(걸시악), 傑氏岳(걸씨악)은 '걸시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傑始・傑時・濕始・傑豺(걸시)와 傑氏(걸씨)는 '걸시'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고 岳(악)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이다(오, 2007).

3) 현재 이용 현황

현재 제주시 공설공동묘지와 한울누리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오름 등성이 곳곳에 가족묘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제주시공동묘지 단지를 이루고 있다.

향후 계획

백록담을 중심으로 한라산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중 북서·남사면에 위치한 14개 오름의 경관특징 및 지명유래, 역사와 민속, 용천수, 현재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예로부터 제주인들 삶의 터전이 되었던 한라산 자락의 오름은 자연적 가치 외에도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역사유적, 인문자원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의 조사를 토대로 한라산 전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경관특징, 식생의 분포, 역사문화자원 및 인문자원 조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본 조사를 통하여 한라산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인 오름 특성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오름의 문화적 가치조명 및 향후 제주도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이용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용문헌

<사료>

『耽羅地圖』

『濟州三邑全圖』

『大靜郡地圖』

『濟州三邑都總地圖』

<문헌>

이익태, 『知瀛錄』

이형상, 『耽羅巡歷圖』

김종철, 『오름나그네 2』, 높은오름, 1995.

_____, 『오름나그네 3』, 높은오름, 1995.

서재철, 『화산섬의 바람자리 오름』, 일진사, 2005.

신영대, 『제주의 오름과 풍수』, 백산출판사, 2009.

오창명, 『제주도 오롬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禹樂基, 『濟州道_大韓地誌Ⅰ』, 韓國地理硏究所, 1965.

이원진 저, 김찬흡 외 편역,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2002.

홍순만 외 역, 담수계 편, 『譯註 增補耽羅志』, 제주문화원, 2005.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 2010.

제주도, 『제주의 오름』, 1997.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인의 보물』, 201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한라산의 자연 자원』, 2009.